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6-37)

<착한 사마리아 사람>,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

[제1독서] 신명 30,10-14

[화답송] 시편 69(68),14와 17.30-31.33-34.36-37
(© 33 참조)

◎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 가난한 이들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

-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

[제2독서] 콜로 1,15-20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루카 10,25-37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8] 주님을 부르던 날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성체성가: [159] 세상의 참된 행복
[344] 영성체
 - 파견성가: [403]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때에 ²⁵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²⁶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²⁷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²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²⁹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³⁰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³¹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³²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³³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³⁴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³⁵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³⁶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³⁷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성화 해설

착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해 거의 초 죽음이 된 사람을 안아
 힘겹게 나귀에 태우고 있다. 사마리아인이 입고 있는 빨간색
 옷은 열정과 사랑을 상징한다. 이 그림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가슴이 서로 맞닿아 있다. 왼쪽
 끝에는 레위인이나 사제로 보이는 사람이 도움을 외면한 채
 어둠 속에 난 길을 걷고 있다.

〈복음을 담은 성화, 정웅모 신부〉



〈착한 사마리아 사람〉, 들라크루아

†묵상

당시 율법 학자들은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만이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다른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웃은 더
 이상 출신 성분이나 율법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웃이고,
 자비를 베푸는 이는 누구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 학자의 잘못된 이웃
 개념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십니다. 어디까지
 이웃인지 따지며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이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일부
 피조물만의 만이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시고, 일부만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기에 서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이,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이 이웃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어야 합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진정한 이웃, 자비를 베푸는 사람

빈센트 반 고흐 착한 사마리아인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는 네덜란드 출신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이다. 그는 짧은 인생 동안 질곡의 삶을 살면서도 활화산 같은 예술 혼을 분출했으며, 죽음의 강박에서 벗어나고자 부질없는 몸부림을 친 처절한 예술가였다. 오늘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그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이며,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는다.

고흐가 예술에 열중한 기간은 생의 마지막 6년이다. 그 기간에 그는 1천 5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으나 생전에 단 한 점만을 팔았을 뿐이다.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천재가 정신적 파탄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이런 정신병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생레미 요양원에 입원했다. 이 시기에 그는 병실 벽면에 걸린 강렬한 색감을 앞세운 낭만주의의 거장인 들라크루아가 그린 <피에타>와 <착한 사마리아인>을 보고 모작으로 그린다. 파스한 눈길과 든든한 어깨를 제공하는, 아무 이웃도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그는 37세의 나이에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에 행복의 빛과 풍요한 색감을 선물로 남겼다.

고흐에게 필요했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아니 현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참 이웃은 누구인가? 참 이웃의 의미를 루카복음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0.29-37)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 북부의 사마리아는 지리적 여건상 일찍이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민족에게 점령을 당하기 일쑤였고, 그런 와중에 혼혈아가 많았던 곳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던 구약의 계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인을 개로 비유하면서 멸시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율법교사가 던진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 응답하셨다. (루카 10.29-37)

고흐에게 필요했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아니 현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참 이웃은 누구인가? 참 이웃의 의미를 루카복음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0.29-37)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 북부의 사마리아는 지리적 여건상 일찍이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민족에게 점령을 당하기 일쑤였고, 그런 와중에 혼혈아가 많았던 곳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던 구약의 계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인을 개로 비유하면서 멸시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율법교사가 던진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 응답하셨다. (루카 10.29-37)

반 고흐의 그림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다루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림 중앙의 두 인물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들을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올려 태우는 모습이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하려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무게를 이기려고 뒤로 젖혀진 상체와 머리, 힘을 받으려고 말에 밀착하여 신발 위로 들린 오른쪽 다리, 그를 밀고 있는 어깨와 팔이 그것을 증명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빈센트 반 고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환자를 들어 올리려는 사람의 선행에 일조하려는 듯 노새조차 두 다리를 모아 꼴뚱하게 세우며 버티고 있고, 힘을 주느라 애쓰는 말의 얼굴 표정이 특히 인상적이다. 말의 표정에서 비록 미물이지만 그 선행을 위해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림 왼쪽에는 모든 재물이 사라진 빈 상자가 나뒹굴고 있고, 그 뒤로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총총히 사라져가는 사제와 레위인의 쓸쓸한 뒷모습이 보인다. 이들이 사라져가는 그 길과 그 끝은 가물거리고 모호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이들의 태생 또한 명확하지도 않고 얼굴조차 드러내지 못한 모습이 신앙의

본분을 망각한 부끄러움으로 가득해 보인다. 특히 이 그림에서 고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얼굴에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는 남을 섬기고자 자신을 희생한다는 그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다.

고흐는 들라크루아가 그린 착한 사마리아인의 붉은 옷을 노란색으로 바꿨다. 고흐에게 노란색은 행복을 의미하는 색으로, 이런 전이는 결국 이웃을 향한 봉사와 희생은 자신과 모두의 행복을 전제로 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그림의 두 인물 주변을 그린 붓질이 고흐 특유의 불길처럼 위로 치솟는 듯 타오르고 있다. 이 붓질은 삶과 생명을 향한 열정의 표현이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고흐의 그림에 나타난 착한 사마리아인의 힘든 몸짓에서 행복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한 환자에게서 신뢰하는 마음과 파스한 위안을 보는 것은 바로 이들 둘이 꼭 달라붙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사람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성체성사의 신비를 완성하는 것이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부모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공경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 가지 말씀(Decalogo, 데칼로그, 십계명)’안으로의 여정이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계명에 도달했습니다. 부모님 공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영광, 가치, 그리고 (글자 그대로) “무게”, 현실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에 대응하는 걸 뜻합니다. 이는 종교 의식에서도 표현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합당한 위치를 부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헌신과 애정과 보살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계명은 나뉠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포함된 계명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고 잘될 것이다” (신명 5.16).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오직 부모와의 관계에만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아직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부모들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계명은 부모의 공로에 관계없이 자녀들의 행위에 대해 말하고, 특별하고 자유로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모든 부모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이의 어린 시절이 평온하지 않더라도, 모든 자녀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하고 행복한 삶에 이르는 것이란 우리를 세상에 낳은 분들에 대한 올바른 감사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 시절에 고통을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계명)이 어떻게 건설적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성인(聖人)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삶과 화해했기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복지(福者)들을 비롯해 다음 달에 시성되는 술프리치오(Sulprizio)를 생각해봅시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으며 자신의 부모를 결코 거부하지 않았던 덕분에, 그는 19세에 수많은 고통을 비롯한 많은 것들과 화해했습니다. 아울러 방랑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사랑과 봉사의 삶을 이뤘던 성 가밀로 데 렐리스(san Camillo de Lellis), 모진 노예 생활에서 자란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santa Giuseppina Bakhita), 가난한 고아였던 복지 가롤로 뇨키(beato Carlo Gnocchi),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여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역사를 살았는지 간에 사람은 이 네 번째 계명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지평을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되며 우리도 “위로부터 태어나게” (요한 3.3-8 참조)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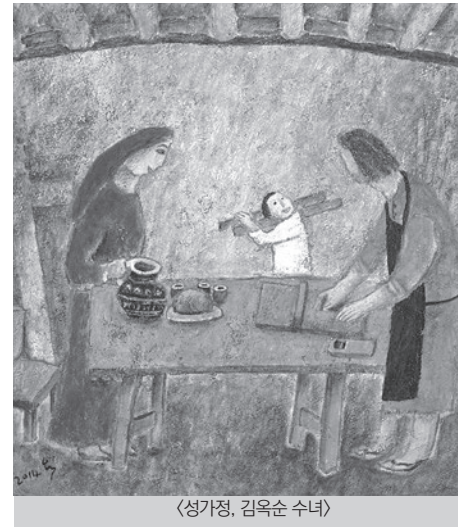
우리 삶의 비밀은 하느님께서 항상 당신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빛이 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위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멀어졌다면 노력해서 부모에게 다가서십시오.

절대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그 누구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결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놀라운 우리 생명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은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은총이며(요한 1.11-13 참조),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의 보화입니다. 세례성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마태 23.9; 1코린 8.6; 에페 4.6 참조)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성가정, 김옥순 수녀〉

During his weekly general audience on Wednesday, Pope Francis continued his series on the Ten Commandments. He dedicated his catechesis of September 19 to the fourth

commandment: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our continuing catechesis on the Ten Commandments, we now turn to the fourth commandment: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In the version of the Decalogue found in the Book of Deuteronomy, this command is followed by the promise of a long and happy life.

We know how important the experience of good upbringing is for our later life, as well as the fact that not all parents are perfect. The fourth commandment bids us respect those who brought us into the world, despite their own limitations and the shortcomings of our childhood or home situation. When we look to the saints who suffered in their early years, we see that whatever our past hurts, God’s grace can bring not only healing but strength to change and to build a constructive future.

God has a plan for our life. He is our heavenly Father, who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his Son offers us the possibility of being born anew and to enjoy life in abundance. In this light, we can honor our parents with gratitude for the gift of life they gave us, which finds its fulfillment in the glorious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휴가 때의 기도

이해인 수녀

바다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탁 트이고 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한 줄기의 푸른 바람이 이마의 땀을 식혀 주는 한여름 저희는 파도의 씻기는 섬이 되고 숲에서 쉬고 싶은 새들이 됩니다

바쁘고 숨차게 달려오기만 했던 일상의 삶터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섬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저희를 따뜻한 눈길로 축복하시는 주님

가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섬의 시간을 가지셨던 주님처럼 저희의 휴가도 게으름의 섬이 아닌 창조적인 섬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하얀 소금빛 보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휴식의 공간이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든지 저희의 휴가길에는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서 환해진 미소와 서로 돕고 양보하는 마음에서 피어오른 잔잔한 평화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피곤한 몸과 마음을 놓히는 긴 잠도 주님 안에 머물면 달콤한 기도의 휴식이니 저희가 쉴 때에도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를 새로운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해주시며 주님과 만남을 통해 우울하고 메마른 저희 마음의 사막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새소리, 바람소리에 흠뻑 취하는 자유의 시인이 되어보고 별과 구름과 나무를 화폭에 담아보는 화가의 마음을 닦아 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보물을 새로이 발견하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던 아름다움의 발견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들도 문득 자신의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즐거이 봉헌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휴가의 순례길에서 저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좀더 고요하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넓디넓은 바다에서는 끝없이 용서하는 기쁨을 배우고 깊고 그윽한 산에서는 한결같이 인내하는 겸손을 배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하게 하십시오 항상 곁에 있어 귀한 줄 몰랐던 가족, 친지, 이웃과의 담담한 인연을 더없이 고마워하며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휴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15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14, 2019

Loving God and Our Neighbor



<오마리아 그림-바오로딸 콘텐츠>

In today's Gospel reading, we learn that the greatest commandment is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and soul and strength and to love our neighbor as ourselve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do in your life is loving God. If you really love God then you will do what is right and love other people as well. *The Samaritan* in the story loved God even though he didn't worship Him in the proper way like the Jews did. But because he loved God he wanted to please Him by being kind to his enemy.

If you don't love God then you w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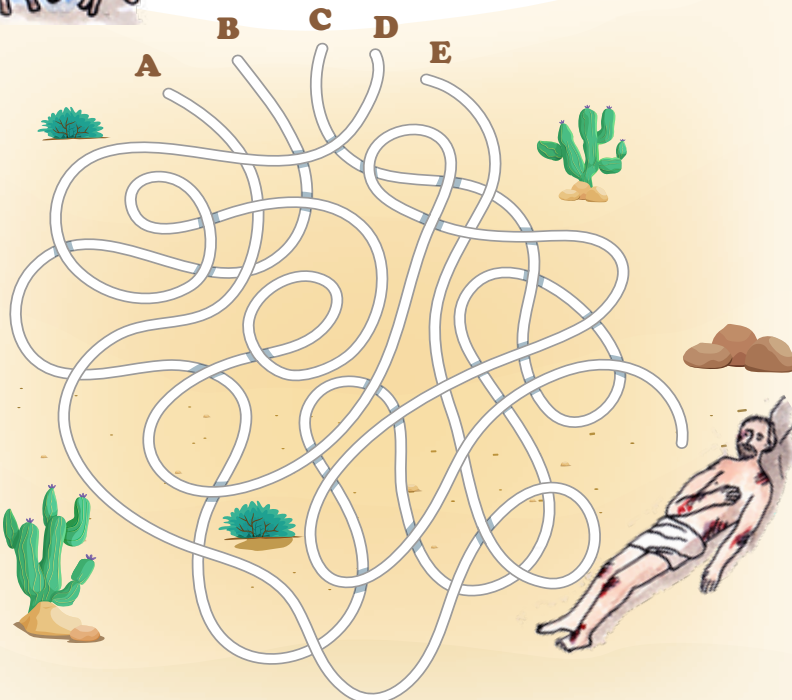
not be able to make good decisions about other things either. You can't even love other people properly if you don't love God the most. The priest and Levite in the parable probably cared more about themselves than about God. That is why when they saw their own countryman injured and lying by the roadside they just walked past.

Is God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your life? Talk to Him every day and you will grow to love Him. You can be a good neighbor to everyone by being a good friend of God.

<<https://www.thekidsbulletin.com>>

MAZE

Which of the three paths would the good Samaritan take? Find out which one leads to the man who was robbed.



CCD



- **When:** 8/2(Fri) - 8/4(Sun)
- **Where:**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Who:** Rising 4th - Rising 8th Graders
- **Camp Registration Services :**
July 7-July 28(Sundays), from 8:45am-1pm at the Parish Hall
- **Registration Fee:** \$120/camper
- *** Sibling Discount:** \$100/camper for two or more campers from the same family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Mr. Taehyun Lee*, Camp Director at (703) 819-5815.



1 2019 - 2020년도 사목 보고회

- 일시: 7월 28일(일) 오후 1시, 성당(오후 12시 점심식사)
- 참석 대상: 회장단, 사도회 임원, 재정위원, 구역봉사자 (소공동체), 단체장(신심 및 활동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CD, CYO) 교감, 하상 문화원 원장, 하상 방송 코디네이터, 하상 성인학교 교장, 하상 한국학교 교장/교감
- 문의: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2 성가 특강

- 일시: 7월 14일(일) 오후 1:30 - 오후 3시(성당)
- 주제: 성가 기도의 은혜
- 준비물: 가톨릭 성가집
- 강사: 이종철 배난시오 신부(수원교구)
- 대상: 성가대와 성가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분들

3 한국 외방 선교회 홍보

- 한국 외방 선교회 미주 후원회 담당 신부님께서 선교회 홍보와 후원 회원 모집을 위해 본당을 방문하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자: 7월 13일(토) -14일(일)
- 담당: 김상균 다니엘 신부

4 단체장 회의

- 일시: 7월 14일(일) 오전 11:30(B-3,4)

5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7월 14일(일) 오후 1시(B-3,4)

6 사도 임원회

- 일시: 7월 18일(목) 오후 8시(B-1,2)

7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7월 21일(일) 오전 11:30(B-3,4)

8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7월 21일(일) 오전 11:30(A-1,2,3,4)

9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7월 21일(일) 오전 11:40(하상관 #5)

10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7월 28일(일) 오전 11:30(A-1,2)
- 강사: 정문기 윌리엄(DK Health VA)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1 CYO(고등부) 여름 캠프 신청

- 신청: 미사 후 (8시, 10시, 11:40), 친교실
- 등록비: \$120 / 2명부터 \$80
- 일정: 7월 25일(목) - 7월 28일(일)
- 대상: 9학년 - 12학년
- 장소: Prince William County Park
- 문의: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2 CCD 여름 캠프 신청

- 대상: 3학년 - 7학년
- 일정: 8월 2일(금) - 8월 4일(일)
- 장소: Pine Creek Retreat Centre, Gore, VA
- 신청: 7월 28일까지,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오전 8:45 - 오후 1시)
- 문의: 이태현 디렉터 (703)819-5815

13 2019년 이나시오 영성 8박 9일 침묵 피정 (동중부 CLC 개최)

- 일정: 8월 9일(금) - 8월 17일(토), 선착순 30명
- 장소: 로올라 피정의 집
9270 Loyola Retreat Rd. Faulkner, MD 20664
- 신청 및 문의: 임윤호 요한 (703)201-9506
yoonho_lim@yahoo.com

14 워싱턴 가르멜 재속회 침묵 영성 피정

- 일정: 8월 10일-8월 11일(1박 2일)
- 장소: Washington Retreat House
4000 Harewood Road N.E. Washington, D.C.
- 강사: Fr. Steven Payne, OCD, 민병섭 바오로 신부님
- 문의: 박은미 마리스텔라 (703)955-6633
박성근 안드레아 (804)241-7499

15 과달루페 성지 순례 (M.E 주관)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 27일(일), 3박 4일
- 경비: \$1,150 (7월 21일까지 / 예약금 \$150 선불)
- 방문지: 과달루페 성지, 바실리카 성당, 산타 도밍고 성당, 부에블라 시, 맥시코 시티
- 신청: 7월 21일까지 친교실 (미사 후)
- 문의: 김 요한비안네 (703)830-5473



www.masstimes.org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14일(일)	연중 제15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성가 특강(오후 1:30, 성당), 외방선교 후원회 및 2차 헌금
15일(월)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16일(화)	연중 제15주간	하상 한국학교,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17일(수)	연중 제15주간	하상 한국학교,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18일(목)	연중 제15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 사도 임원회(오후 8시, B-1,2)
19일(금)	연중 제15주간	하상 한국학교, 평일미사(오후 7:30)
20일(토)	연중 제15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7월 21일(일)	연중 제16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KofC 임명식(오후 1시, 성당)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15주간: 시편 91-98, 2 코린 3-4

KACM TV 하이лай트

7월 18일(목) 오후 5:00-6:00
7월 19일(금) 저녁 8:00-9:00
7월 21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12): 황량한 메세타 들판에 핀 꽃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7월 7일(연중 제14주일)

주일헌금	\$7,447.00
교무금	\$11,1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940.00
특별헌금	\$420.00
2차헌금	\$0.00
합계	\$22,91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오규희(벨바라), 정명규(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녜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지(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점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녜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벽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해(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바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효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경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에스터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819-0360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알렉산드리아 병원 근처 703-679-8959	Commercial 김준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